

속뜻은 물결

통권 287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8 2023



오래된 석탄을 넘어서!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석탄을 넘어서'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7월 6일 충남 보령화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화력 5·6호기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며 자전거행진과 도보행진에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도민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 홍보한 총남, 세금이 아깝다"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보령화력 5·6호기 당장 조기 폐쇄"
수명연장에 반대 목소리

- ▶ 발행일 2023. 8.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조개껍질 / 윤동주
- 4 지역환경초점1
| "도민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 홍보한 총남, 세금이 아깝다"
- 6 지역환경초점2
| YK스틸 송전선로 최종변경안 제출.. "전문가 검토 필요"
- 7 지역환경초점3
|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11차 캠페인 진행
- 8 지역환경초점4
| 수도권 전력 송출에 당진생태 죽는다.
- 9 지역환경초점5
|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 10 지역환경초점6
| "보령화력 5·6호기 당장 조기폐쇄" 수명연장에 반대 목소리
- 12 지역환경단신1
| "결국 화석연료... 보령화력 LNG터미널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 13 지역환경단신2
| 기후위기 탄소중립 찾아가는 환경교육 진행
- 14 지역환경단신3
| 당진남부사회복지관과 환경 단체 7곳, MOU 체결
- 15 전국환경초점1
| 환경운동연합, 해운대서 '日정부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 16 전국환경초점2
| 윤석열 정부, 감사원 앞세워 '4대강 보 해체' 뒤집었다
- 17 전국환경초점3
|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소...환경부 '탈원전 폐지 덕' 아전인수
- 18 전국환경초점4
|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 19 7월 살림살이
- 20 7월 활동소식
- 22 8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조개껍질

윤동주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 언니 바닷가에서
주워 온 조개껍데기

여긴여긴 북쪽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데굴데굴 굴리며 놀다
짜짙은 조개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소리.

작가소개

윤동주

1917.12.30일생 일제강점기 시인. 암울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아성찰의 시세계를 보여주었다. 대표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1943년 7월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경찰에 송몽규와 함께 검거되어 각각 2, 3년 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45년 2월 16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옥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이 '김태흠 지사가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충남도민'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성하고 있다. 핵 오염수가 진짜로 안전하다면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왜 돈을 쓰면서까지 바다에 버리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정섭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가 로림만에 사는 어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얻는 이익은 없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논란에 대응하지 않을 것"

기자회견과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해양수산

부의 카드뉴스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도 정신문에 다시 게재할 계획은 없다. 논란에는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 국장은 "충남도가 입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도정 신문에 실은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한 도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문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옹호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 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출처:오마이뉴스]

YK스틸 송전선로 최종변경안 제출..“전문가 검토 필요”



와이케이스틸에서 당진시에 제출한 최종(변경안) 평면계획도.

YK스틸의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최종 변경안을 두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년 11월 YK스틸은 충남도, 당진시와 3000억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하고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로 본사 및 공장 이전을 계획했지만, 인근에 있는 석문 변전소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YK스틸은 신송산 변전소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총 15.3km 구간에 임시로 수전선로 설치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2년 9월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에서 금강청은 철새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조건부로 협의했고, 같은 해 11월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완료했다.

2022년 5월 최초 신청 당시 선로길이 8990m 가운데 지중화는 1500m로, 관형주 22기, 송전철탑 4

기에서 금강청 협의에 따라 관형주 3기, 송전철탑 4기 등 가공선로 7기로 축소됐지만 지난 5월 YK스틸에서 당진시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가공선로 4052m와 지중화 4486m 등 총 선로길이 8538m로, 관형주 10기, 송전철탑 4기 등 가공선로 14기로 증가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한전에서 가공선로 7기만 설치하고, 잔여부분을 전부 지중화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현대제철에 설치된 전기 장치 등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인근 지역까지 정전 사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YK스틸과 최종 합의했다는 것.

지난 13일 열린 당진시의회 7월 중 의원출무일에서 조상연 의원은 “지금 하는 주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떻게든 자기네 부담을 덜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한전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하 생략)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11차 캠페인 진행

8월에도 매주 캠페인·서명운동 지속 예정



지난 7월 2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7월 24일(월)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며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은 5월 8일부터 시작돼 이날 11차 캠페인까지 이르렀다.

이날 캠페인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은 "국제원자력기구는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도 하지 않고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일본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보고서를 성급하게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IAEA 보고서를 핑계로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정

부의 자세를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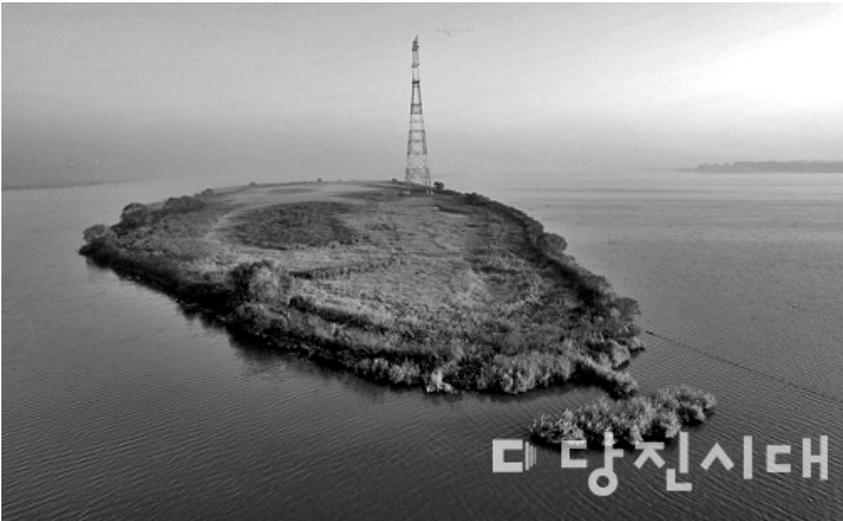
또한 김정진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나서서 홍보하는 자세를 보이니 벌써부터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정부가 할 일은 괴담 타령이 아니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8월에도 당진터미널 입구에서 이어갈 예정이며 시민들과 함께 8월 12일 서울에서 진행될 오염수 저지 10만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글 : 사무국】

수도권 전력 송출에 당진생태 죽는다.

당진시-한전 '공사중지명령 취소' 행정소송
소들섬 철탑공사 중지명령 2심 당진시 패소
당진시 "2심 불합리...대법원 상고할 것"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한 소들섬

삼교호 소들섬 고압송전철탑건설 문제로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행정소송을 하는 가운데, 법원이 '한전 패소'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소들섬 일대 철탑 건설을 진행하는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당진시는 "해당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야생생물 보호대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에서는 소들섬 구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당진시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당진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한전은 항소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다. 지난 18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2심 법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보다 국책사업으로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진시의 처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진시 도시과 개발허가팀은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적 절차를 따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당진시대]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 진행

신입회원 7명 참여, 당진환경운동연합 활동 소개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날에 참여한
신입회원들



새내기 회원들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와 활동내용에 대해 듣는 모습

2023년 상반기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이 지난 7월 20일 저녁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7명의 신입회원과 가입 추천 회원, 공동의장단, 사무국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새내기 회원 만남의 날은 공동의장단 인사,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 및 활동 소개, 참가 신입회원 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와 활동소개는 환경운동연합의 핵심가치와 목표, 환경운동연합 활동

분야, 창립 배경에 이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역사와 조직 체계, 창립 이후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펼친 석탄화력 반대 및 송전선로 대응, 당진천 살리기, 갯벌 살리기, 기후위기 대응,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대응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한 새내기 회원은 “회원이 되기 전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됐다”며 “당진환경연합이 그동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회원이라는 사실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사무국]

"보령화력 5·6호기 당장 조기폐쇄" 수명연장에 반대 목소리

충남 시민단체, 6일 보령화력 앞 기자회견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석탄을 넘어서'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7월 6일 충남 보령화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화력 5·6호기의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충남 보령화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화력 5·6호기를 조기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보령화력 5·6호기는 '설계 수명대로라면 30년이 되는 올해 혹은 내년까지 폐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령화력 5·6호기의 폐쇄 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힌다. 시민들이 보령화력의 조기폐쇄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석탄을 넘어서'(단체명) 등 충남을 비롯한 경남, 인천 등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보령문화의전당까지 대략 10km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3시경 문화의전당에 집결한 뒤 도보로 보령시에 위치한 중부발전 본사 앞까지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보자기에 '보령화력 5·6호기 빨리 꺼', '석탄과 가스로 지역 소멸 못 막아' 등의 글귀를 적었다.

참가자들은 "보령화력 5·6호기는 이미 오래된



이날 당진환경연합 회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에 해당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이상의 수명이 연장되서는 안된다"며 "노후 석탄발전기를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은 기후위기라는 재난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선숙 기후위기에너지전환 보령행동 대표는 "독일과 네델란드는 석탄발전 금지법제정을 통해 1개월을 가동했던 1년을 가동했던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말 부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보령화력 5.6호기는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하는 유물이다"라며 "정부는 오래된



보령화력 5-6호기 조기폐쇄 자전거 행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결국 화석연료... 보령화력 LNG터미널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충남 환경운동연합과 플랜 1.5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1.5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 LNG터미널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충남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면 재검토하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최근 보령화력본부 북쪽 회차리장(물에 의해 이송된 재를 처리하기 위한 못) 부지에 총 6629억원 규모의 LNG터미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다.

충남환경운동연합과 플랜 1.5는 7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발전 보령 LNG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부 발전의 LNG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사업 추진'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예타) 보고서는 LNG 발

전이 오는 50년까지 전체 전원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중략) "마찬가지로 중부발전의 LNG 터미널 사업의 예타 보고서에서도 이용률이 과도하게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과연 LNG 발전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LNG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대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LNG 역시 화석연료이다. 충남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략)공기업이 재무적(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기후위기 탄소중립 찾아가는 환경교육 진행

원당중 2학년·3학년, 면천면 죽동2리·원동리



원당중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환경교육



원동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마을교육



죽동2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마을교육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학교와 마을을 찾아가 기후 위기 탄소중립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7월 10일 원당중학교 강당에서 2학년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45분간 2회에 걸쳐 기후 위기 탄소중립을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7월 11일 면천면 죽동2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사대 탄소중립을 위한 마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7월 26일에도 면천면 원동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사대를 맞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마을교육을 진행했다.

[글: 사무국]

당진남부사회복지관과 환경 단체 7곳,

기후위기 관심 촉구 위한 MOU체결



지난 7월 5일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환경단체들과 MOU체결을 했다.

당진남부사회복지관(관장 김창희)은 지역사회 기후위기 관심촉구를 위해 지역 내 환경 단체들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관심 갖고, 탄소배출 및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늘품 나르샤(대표 안병권), 당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손창원), 마스터 가드너(대표 김준섭), 뿌리뽕이 놀이터(대표 강정숙), 생태환경교육연구소 풀씨(대표 김수정), 지구마을 토종 삶터(대표 강정숙), 풀숨노리 공작소(대표 유난영)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후위기 관심촉구활동으로 게릴라 가드닝, 우수관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10월 7일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들과 지구방위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합덕여자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부스운영을 통한 환경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후위기관심촉구 프로그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이 합덕여자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과 더불어 자발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출처: 당진신문]

환경운동연합, 해운대서 '日정부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환경운동연합 전국활동가대회 참가자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상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환경단체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와 김춘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부산·울산·전남·제주·경남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춘이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으로 삼아 해양투기에 나서겠다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말 그대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상 테러를 자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금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을 이어 왔다"며 "수산업과 해양산업의 핵심지역인 부산에서 오늘 우리는 환경운동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부산 지역에 호우·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00여명의 환경 활동가들은 집회에 앞서 해운대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3km에 이르는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난 후 이들은 하늘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SOS 모양으로 둘러앉아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출처: 뉴시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앞세워 ‘4대강 보 해체’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하고,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환경부는 곧바로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며 4대강 16개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이날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결과, “과학적·객관적 경제성 분석 결과가 (두 강의) 보 처리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공주보·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결과 탓”이라고 했다. (중략)

이에 47개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보도자료를 내어 “보 처리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춤형 정치 감사, 변죽만 요란했던 맹탕 감사”라고 반박했다.

■ “불공정한 위원회 구성”

(중략)감사원은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에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했다고도 밝혔다.

이 단체는 181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다. 감사원은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이 이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에게 이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며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 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수사 대상이 된 김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뒤집으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 문제를 10년 넘게 지적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매우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4대강 모든 보 존치”

환경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댐 신설과 하천 준설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략) 또한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보 해체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출처:한겨레 일부 발췌]

온실가스 배출량 3.5% 감소…환경부 ‘탈원전 폐지 덕’ 아전인수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5450만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가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덕분인 듯 이유를 설명하자, 환경단체 쪽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는 25일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6억5450만톤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잠정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로 확정되기 전 배출량이다. 2022년 확정 배출량은 내년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정점을 찍었던 2018년 배출량(7억2700만톤)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20년 6억5662만톤까지 줄어들었다가 2021년 6억7960만톤(잠정치)으로 3.5% 증가한 바 있다. (중략)

부문 별로 살펴보면 △산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은 1630만톤이 줄었고 △전환 부문 970만톤 △수송 부문 80만톤 △폐기물 부문 10만톤 감소했다. 반면 건물 부문과 농축수산부문에서는 각각 140만톤과 30만톤 늘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까닭은 세계시장의 수요 감소에 따라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2억4580만톤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략)

전환 부문의 경우,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4.3% 감소(2억1390만톤)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략)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각각 11.4%와 23.4% 증가했지만,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은 2.4%와 2.9%씩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휘발유 소비량이 4.2% 증가했으나 경유 소비량이 3.6% 줄어든 것과 무공해차 보급이 67.2% 늘어난 데 힘입어 배출량이 전년보다 0.8% 감소한 9780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건물 부문에서는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겨울철 평균기온 하락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 농축수산 부문에서도 한·육우 사육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략)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원전 발전량이 증가한 것은 안전 문제로 멈춰 섰던 한빛 3·5호기의 발전량이 늘고 신한울 1호기가 새로 가동된 데 따른 것으로 현 정부 정책과 무관하고,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도 (정부) 정책의 결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부가 (탈원전 정책 폐지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처럼)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출처: 한겨레 일부 발췌]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넓은 부지에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이죠. (중략)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중략)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중략)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원전 오염수가 더해져 일어날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중략)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대가 심해, 지금으로써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7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21,215,477	인건비	급여	5,750,000
회 비	개인회비	5,245,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20,000		사회보험료	529,290
	계	5,265,000		계	6,694,57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212,15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87,700
	계	212,15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		지급수수료	314,010
	계	-		기타운영비	1,52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1,923,61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260,34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
	계	-		생활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		조직 회원사업	1,456,13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1,614		연대사업	362,103
	계	1,614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		계	2,078,57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
차입금	차입금	-		계	-
	계	-	이월액	이월액	15,997,488
		계		15,997,488	
월수입 총계		5,478,764	월지출 총계		10,696,753
수입 합계		26,694,241	지출 합계		26,694,241



7월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7월 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7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부사회복지관 협약식

7월 5일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환경단체들과 MOU체결을 했습니다.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캠페인

7월 10일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대회 참가

7월 13일~14일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열린 전국활동가 대회에 사무국이 참여했습니다.



당진지속협 환경분과 작은워크숍 참가

7월 18일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환경분과 작은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

7월 25일 늘푸른물결 소식지 8월호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01 일반사업

- ❖ 8/02 석탄을 넘어서 가스발전 워크숍 - 온라인
- ❖ 8/04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 8/07 충남기후에너지교육 강사단 교안 시연 자문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8/08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원회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터미널 입구
8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8/10 해나루보호작업장 자원순환 환경교육 - 해나루보호작업장
환경연합 탈석탄 전략회의 - 서울 환경센터
후원행사 기획단 회의 - 사무실
- ❖ 8/11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 ❖ 8/12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촛불집회 - 서울
- ❖ 8/14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터미널 입구
- ❖ 8/16 석탄을 넘어서 가스발전 워크숍 - 온라인
- ❖ 8/17 해나루보호작업장 생물다양성 환경교육 - 해나루보호작업장
- ❖ 8/22 에너지의 날 기념 당진기후행동 - 터미널 입구
- ❖ 8/24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 회의 - 당진지속협
당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8/25 LNG발전 관련 기후위기 충남행동 세미나 - 내포혁신플랫폼
- ❖ 8/28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터미널 입구
- ❖ 8/30 석탄을 넘어서 가스발전 워크숍 - 온라인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8/29(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이종학(원당동), 이동현(읍내동)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종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테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진 김정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립
 김현웅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선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선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지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종 송한결 신경상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라 유경자 유영석 유용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정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 월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종호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혜슬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판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병준 정본환 정봉식 정선휘 정세훈 정영표 정종한 정중섭 정치용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정수 허권섭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2023년 에너지의날 기념 캠페인”

석탄 NO 바람! 원전 NO 햇빛!

올해 엄청난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고,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조차 힘듭니다. 현재도 화석연료와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날짜 8. 22.(화) 오후 6시 30분

장소 당진 신터미널

참가문의 041-355-7661(당진환경연합 사무국)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를 만들어 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당진환경연합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방법

- 1 전화 041-355-7661 전화주세요.
- 2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dj.ekfem.or.kr)
- 3 주변의 지인을 소개 해 주세요.
- 4 전화주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 5 소개시켜 주신 회원님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